

NEWS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연간 3000만명 방문”

▶1면 ‘호남 민심’서 계속

지난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호남은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득표율(권리당원+전국대의원)도 충청권과 함께 가장 낮은 88%대에 머물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날 초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광주·전남·전북 국회 의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호남 민심이 이 재명을 ‘미덥지 않은 자식’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대구 유세에서 “호남은 민주당의 본거지이지만 저는 호남을 진짜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호남지역 투·득표율은 투표율 85% 이상, 득표율 90% 이상이다. 그렇지만 최근 여론조사 상 지표로만 봐도 이런 민주당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고령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에서 85% 투표율은 일선 시군에 가보면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겨뤘던 지난 20대 대선에서 80% 초중반 득표를 얻는 데 그쳤다(이재명 광주 84.82%, 전남 86.10%, 전북 82.98%).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에게 90%가 넘는 표를 몰아주었고,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90% 가까운 표를 준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당시 호남 출신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밀려난 여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시 0.73% 표차로 이 후보가 대선을 지지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역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호남이 조금 더 표를 줬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면 ‘자영업 붕괴’서 계속

전남의 산업 근간인 농림어업(-2만명, -9.6%) 취업자가 크게 줄며 지역 고용 약화를 이끌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만3000명(6.7%) 증가했고, 상용근로자는 2만3000명(-5.6%)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1000명(-0.4%) 줄었다.

지난달 전남 실업자는 2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15.0%)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로 0.4%p 떨어졌다.

시,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회…“소상공인도 기회” 커피·제과 제외 모든 업종서 매출액 증가 등 긍정 영향 대규모점포 3개 출점, 경제효과 37조·취업유발 12만명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연간 방문객 수는 3000만명이며, 이 중 주변 점포 동시 이용객도 19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광주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연구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고회에는 고광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소

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간 보고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조 교수는 최근 5년간 광주시 업종별 매출액 및 이용고객 분석, 대전·대구 등 타 지역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 사례 조사, 대규모 점포(1차 : 더현대 광주) 입점이 광주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했다.

연구 결과, 광주시 상권은 전반적으로 외부고객의 유입이 낮은 내수형 상권(2024년 기준 광주 시내 점포 이용객-광주시민 81%, 타 지역민 19%)으로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할 경우 상권도 같이 쇠퇴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대구 등 타 지역 복합쇼핑몰이 해당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화장품과 커피·제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매출액이 상승했고, 타 지역민 이용 비중도 4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광주시 여건에 접목하면 ‘더현대 광주’ 반경 5km에서는 화장품 업종을 제외한 슈퍼마켓, 음식점, 의류·패션·잡화, 커피·제과, 가전·가구·생활잡화 업종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반면 광주시 전체적으로는 커피·제과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특례보증 확대 등 다양한 상생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더현대 광주’의 연간 방문객 수는 3000만명이며, 이 중 주변 점포 동시 이용객은 1900만명으로 추산됐다. 시설 투자 1조2000억원, 생산유발효과 2조364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996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2600명 등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스타필드 광주 등 3개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37조62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설 투자(6조9466억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3조684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조7865억원, 취업유발효과 7

만2939명으로 추정되며, 대규모점포 운영에 따른 연간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723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5100억원, 취업유발효과 4만6933명으로 분석됐다.

조 교수는 앞으로 신세계백화점 확장, 스타필드 광주 입점 등이 광주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진행 중이며, 신용카드 매출데이터 활용 등 과학적 분석을 적용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상생 방안 등은 상생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입점 대기업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국립순천대학교 개교 90주년 기념식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4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국립순천대학교 개교 90주년 기념식’에 참석, 대학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체감형 복지 실현’ 속도 낸다

4월까지 480개 기관·973명 참여…1만5000여명 이용

전남도가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을 찾아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체감형 복지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직접 기획·발굴·운영하는 자율적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다.

전남도는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

소년 정서발달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농어촌 노인 웰빙라이프 행복드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총 27개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14일 고용·과역면 송학여경로당을 방문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

로 운영 중인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참여 중인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노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4월 현재 전남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수와 제공 인력은 각 480곳, 973명, 서비스 이용자 수는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농기원, 국가연구개발공모 140억 확보 스마트농업·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38개 과제 선정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이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38개 국책과제가 선정돼 총 14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향후 3~5년간 기후위기 대응, 지능형 양분관리 및 생체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전남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이다.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실증·실용화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 농작물 신품종 개발, 장미종 배 재배 적지 평가 등 31개 과제가 선정됐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모사업에는 ‘흑하랑 수면기능성 고품량 원

료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 2개 과제가, 다부처스마트팜 R&D사업단에서는 ‘생체형 AI를 활용한 저온성 작물의 스마트온실 관리 시스템 상용화’ 관련 4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지역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지역특화작목 연구성과 우수기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의 지역특화작목인 유자, 차, 무화과, 커피 등 4개 작목에 대해 총 36억원의 추가 연구개발 지원도 약속받았다.

김행란 전남농기원장은 “이번 성과는 뛰어난 연구관리 역량과 신진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결과로 지속적인 연구지원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지방소멸 대응’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선정 완도군, 국비 50억 확보 ‘섬 미술관’ 건립

완도군이 지방소멸대응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20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시설 조성 등

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완도군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병원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 참여한 대우재단(아트선재센터)과 협력해 ‘완도섬 미술관’을 건립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기반시설 등 조성에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며, 사업효과가 높아지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이성오 기자 sole235@gwangnam.co.kr

전남-곡성 모듈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앞장 서겠습니다

휴인주식회사
HUIN Co., Ltd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 입니다.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산 - 치유센터 목구조 골조 화산 - 치유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www.huin.kr